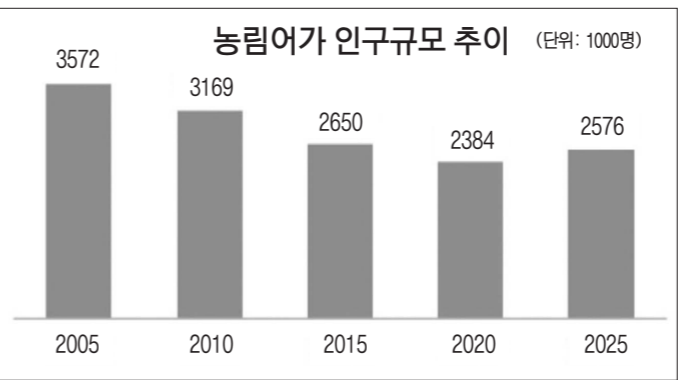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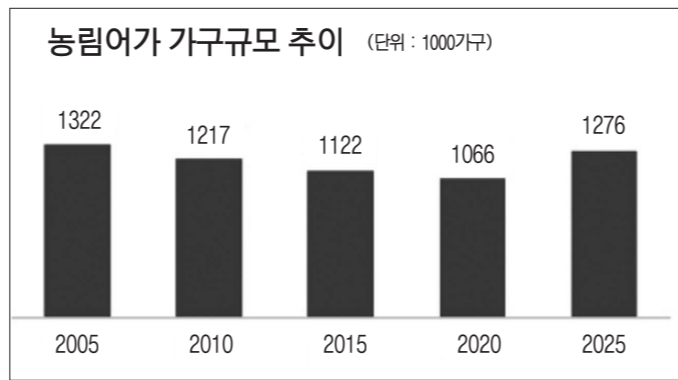


광주 '도시 농부' 5년간 37% 늘어... 임업도 42% 꺾춤

전국 동지역 거주 42% ↑
서울 증가율 100% 육박
도시 살면서 농사 겸업
전남 여가·종사자 감소

광주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5년 동안 36%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데이터가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광주 주 농가는 2020년 1만6676가구에서 지난해 2만2772가구로 36.6%가 증가했다. 농가인구는 3만9873명에서 4만8441명

으로 21.5% 늘었다.
이 중 광산구가 7483가구(1만5635명)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북구(5840가구, 1만2767명), 서구(4344가구, 9276명), 남구(3684가구, 7861명), 동구(1421가구, 2902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임가도 1798가구에서 2560가구로 42.4%, 임가 인구도 4462명에서 5498명으로 23.2% 각각 늘었다.
전남은 농가 13만6972가구에서 15만4432가구, 농가인구는 28만60명에서 28만6728명으로 각각 12.7%, 2.4% 증가했다.
임가도 1만4230가구에서 1만6406가구로 15.3%, 임가인구는 3만256명에서 3만1357명으로 3.6%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여가는 1만5574가구에서 1만5447가구로 0.8% 감소하고 여가인구는



3만5357명에서 3만1092명으로 12.1%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도시의 농가·여가·임가 모두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국의 농림어가는 지난해 127만6000가구로 직전 조사일인 2020년(106만6000명)보다 19.8% 늘었다.

이 중 읍·면 지역 가구는 직전 조사 대비 11.7% (9만1000가구) 증가한 반면, 동 지역은 41.0% (12만가구) 증가했다.
농가의 동 지역 거주 가구가 5년 전보다 41.9% 늘어나며, 읍·면 지역(11.7%)보다 증가율이 4배 가까이 높게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8418가구에서 1만6747가구

로 98.9%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겸업해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2025년) 기준 국내 농림어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1.0%로, 직전 조사인 2020년(41.9%)보다 9.1%p 늘었다. 이는 전체 인구 내 고령인구 비중

(20.3%)의 2.5배 수준이다.
관련 조사가 데이터처로 이관된 2000년(임업은 2005년, 종조사는 2010년부터 시행) 이래 최고치다.
중위연령 역시 65.3세로 5년 전보다 3.1세 올랐다. 전체인구(46.7세) 중위연령과 비교하면 18.6세 많았다.
전체 농림어업 중에서는 농가 고령인구 비중이 51.3%로 가장 높았다. 여기는 48.2%, 임가는 47.9%였다.
경영주 평균 연령 역시 농업이 67.7세로 가장 높았다. 농가 경영주 10명 중 8명이 60대 이상(78.8%)이었고, 70대 이상이 4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어업 경영주 평균 연령은 2.2세 오른 65.4세, 임업은 2.1세 오른 66.5세였다.
연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농협 전남검사국, 중대재해 예방 현장 점검

담양농협서 영농철 대비 위험요인 살피

농협 조합감사위원회 전남검사국은 28일 담양농협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농업인과 임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5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협 경제사업장 이송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남검사국은 이날 점검에서 △사업장 내 잠재적 위험요인 파악 △종사자 작업

방식 점검 △현장 감독자의 안전관리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3심(같은 마음가짐으로, 함께 협심하며, 주변에 관심 갖기)' 정신을 바탕으로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무사고·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강조했다.
편지형 검사국장은 "작은 방심이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근로자는 물론 농협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28일 영암군 군서면 한우 농가를 찾아 '에쁜 농장 벽화그리기' 행사를 진행하며, 축산농가 외부 환경 정비를 통한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쳤다.

농협 전남본부, '농장 벽화그리기' 행사

영암 한우농가 찾아 환경 정비

농협 전남본부는 28일 영암군 군서면 한우 농가를 찾아 '에쁜 농장 벽화그리기' 행사를 진행하며, 축산농가 외부 환경 정비를 통한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농심전심' 가치 실천의 일환으로, 축사 외벽 경관을 개선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 축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나눔축산운동본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 참여를 유도하고, 축산업과 지역사회 간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농장 외벽 정비와 같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쌓일 때 축산에 대한 인식도 함께 달라진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함께하는 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축산업에 대한 신뢰와 공감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국민안전점검단 발족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수광양항 국민안전점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국민안전점검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수광양항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여수광양항 인근 대학교 학생과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안전점검단은 시설물, 건설현장 안전점검, 재난 대비 훈련 및 캠페인 참여,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선별된 대학생에게는 재난·안전사고 예

방 캠페인, 재난 대응 훈련 참여와 같은 산업 현장의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다양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항만공사는 지난해 국민안전점검단을 통해 국민 제감형 안전 위험요소 9건을 발굴, 개선 조치했다.
최관호 항만공사 사장은 "여수·광양항의 안전은 항만 경쟁력의 출발점이자 중추점"이라며 "국민안전점검단 활동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injin@gwangnam.co.kr



포스코그룹은 최근 산업재해 노동자와 가족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산재가족돌봄재단 '포스코 희망이음'을 출범시켰다. 사진제공=포스코그룹

포스코그룹, 산재가족 지원 '희망이음' 출범

총 250억원 기금 출연... 긴급생계비·자녀 학업 지원

포스코그룹은 최근 산업재해 노동자와 가족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산재가족돌봄재단 '포스코 희망이음'을 출범했다.
포스코그룹이 향후 5년 총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해 운영하게 될 '포스코 희망이음'은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치한 분들과 가족의 사회복귀 희망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단 이사장은 인사전 전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 김돈규 중앙대 광명병원 부원장, 이호영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 박영민 변호사, 장윤정 변호사, 김진우 특성여대 교

수, 고수미 기아대책 미래전략실장, 김시원 ㈜더버터 대표이사, 송문섭 ㈜크레이비퍼퍼메이션 부대표 등 노동, 의료, 법률, 복지 등 각계 각층 전문가 11명(이사 10명, 감사 1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초대 이사장인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가족들을 돕는 데 기업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특별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며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모델로 정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원분야는 사고 직후 생계안정을 위

한 '긴급생계비 지원', 재해자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재해자 돌봄', 자녀들의 학업지원을 위한 '청년 희망 자립지원'으로 나눠 산재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 제조업 분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 재해노동자와 해당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근로복지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 희망이음'을 통해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의 주체가 되는 산업안전문화 정착을 넘어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산시켜 나가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injin@gwangnam.co.kr

소비위축 우려 온누리 7~10% 농축수산물 반값·계란 1000원 할인

중동발 고유가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을 내놨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을 한시적으로 높이고 고효율 에코 제품 구매 시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는 한편, 계란과 농축수산물 반값 할인 등 정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빙인'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정부의 에너지 절약 대응 조치 등으로 소비 심리가 꺾이는 국면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과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유도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우선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다용도 컵 이용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기존의 두 배로 지급한다.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5%포인트 추가 할인을 '사후 캐시백' 형태로 제공한다. 상품권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소비 촉진 차원에서 다음 달 1~5일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7%에서 10%로 한시 상향한다.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5~6월 220억원을 투입해 당근, 양배추, 대추 등 농축수산물 할인을 최대 50% 지원한다. 계란은 30구당 1000원을 정액 할인한다. 할인은 농협하나로, 이마트, 롯데마트, GS리테일 등 참여 온·오프라인 점포에서 적용된다.

6월까지 공공·민간 전기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연근무 확대, 대중교통 할인 카드인 '모두의카드' 발급 조건 완화 등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및 관광 소비 활성화 조치도 병행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동행축제를 '지역·친환경 축제'로 운영해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진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반값 여행' 할인 지원 대상에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객을 포함한다.
5~6월에는 1종 저공해 자동차 대상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를 한시 면제한다.
6~7월에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대상 숙박 쿠폰(30만장) 배포를 계기로 '여름 맞이 숙박 페스타'도 연다.
아울러 '코리아 뷰티프리 페스타' 개최,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국내선 확대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연합뉴스

평동농협, 친환경 벼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59개 농가에 1350만원 상당

광주 평동농협은 최근 본점 자재센터 앞에서 '2026년 친환경 벼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전달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생산보조금 감소와 영농 자체 가격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친환경 벼 재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최승규 평동농협 조합장과 농협 임직원, 친환경 벼 재배 농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평동농협은 이날 총 59개의 농가에 1350만원 상당의 유기질 비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했다. 특히 농협 임직원들은 비료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일손이 부족한



광주 평동농협은 최근 본점 자재센터 앞에서 '2026년 친환경 벼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전달식'을 가졌다.

현장 곳곳을 찾아 직접 비료를 나르며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현재 평동농협은 올해 무농약 인증 면적을 90ha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생산된 친환경 쌀은 농협 통합RPC를 통해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지역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최승규 평동농협 조합장은 "지자체 보조금 감액 등으로 고충을 겪는 친환경 농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하겠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